



미주 목회자 비전캠프가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팜데일 엔젤레스 크레스트 크리스천 캠프에서 열렸다.

새 신자들의 교회정착 막는 7가지 행동

1. 사전 약속없이 집 방문하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사전 약속없이 집 방문을 매우 불편해 한다.
2. 교회 첫 방문 후 조치 전무
새 신자들 중 다수가 "카드 작성 후 한 번도 연락 받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는 그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3. 너무 늦게 연락하기
처음 방문 후 무려 4개월이 지나서야 한 번쯤 연락받았다는 새 신자도 있었다. 물론 그는 다시는 그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4. 의무적으로 느껴지는 방문
어떤 목회자가 새 가족 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그 새 가족은 감동보다는 부담을 느꼈다.
5. 지나친 강권
교회 출석을 지나치게 강권하면 새 가족은 교회와 더 멀어진다.
6. 형식적인 편지나 이메일
형식적인 것 보다는 좀 부족해도 진심어린 편지나 이메일이 효과적이다.
7. 새 가족에게 현금요구하기

“목회자들의 영적 리더십 회복돼야”

미주인터콕 주최... 2016 목회자 비전캠프 성황리에 마쳐

미주인터콕이 목회자 비전캠프를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팜데일에 위치한 엔젤레스 크레스트 크리스천 캠프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박희민 목사, 송병기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과 인터콕의 최바울 본부장, 강요한

디렉터, 임이스마엘 사역코디네이터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캠프의 주요 강의 제목은 시대의 표적, 시대환경과 세계체계 이슬람 현상과 글로벌 지하드, 세계 영적 전쟁과 예루살렘의 평화, 전략적 단기선교와 전방개척선교, 사역과 은사·전략

적 은사 배치, 영적 리더십과 부흥, 선교적 교회와 교회성장 전략 등이었다.
 이사장 송병기 목사는 “불확실성과 혼돈과 영적 어둠이 심화되어 가는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적 도전 앞에서 있는 현대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욱 더 무력해지고

있다”면서 “마지막 시대에 목회자들의 영적 리더십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100여 명의 목회자 부부와 리더들이 참석해 현 세계의 영적 전쟁과 세계 선교에 대해 비전을 얻고 돌아갔다.

문순헌 기자



평화통일염원기도를 알리는 기자 간담회가 2월 22일 호사랑선교회에서 열렸다.

3·1절을 맞아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들이 평화통일염원기도를 개최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렌지카운티·샌디에고협의회와 오렌

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는 6년째 이 행사를 공동으로 열고 있다.
 이 행사는 오는 3월 1일 오후 2시 은혜한인교회 세계기도센터에서 열

“3·1 독립 정신의 완성은 평화 통일로 가능”

민주평통과 OC교협... 3·1절 맞아 평화통일염원기도회 개최

리며 예배와 음악회, 기도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권석대 민주평통OCSD 회장은 “독립의 정신은 통일의 정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750만 해외 동포들의 결집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는 이번 행사에서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
 민승기 OC교협 회장은 “3·1절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낮아지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했다.
 OC교협 부회장이면서 민주평통

의 종교분과위원인 윤덕곤 목사는 “민족의 해방을 그토록 원했던 독립운동은 미완성이며, 이는 남북의 평화통일로만 완성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민주평통OCSD는 올해로 6년째 이 행사를 교계와 연합해 열고 있지만 이번 행사가 미주 전역에서 일제히 열리기 시작한 지는 3년이 됐다. 올해는 미국, 캐나다, 남미 등 20개 지역에서 행사들이 열리며 각 지역 민주평통들은 이민사회를 이끌고 있는 종교단체들과 연합해 같은 취지 아래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준형 기자

리페어서번트

美서부지역 순회 사역

찬양집회, 음향 세미나 및 장비수리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느 곳이든 달려가는 리페어 서번트의 마원철 목사가 美 서부지역 순회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시작된 사역은 덴버제일감리교회와 덴버할렐루야교회 등을 돌며 사역한 후 이어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순회사역이 계속 진행된다. 문의는 전화)909-292-7474, 이메일) repairservant@gmail.com, 페이스북)www.facebook.com/repairservant다.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3-7-21 재능캠프 재능 개발·토크스, 알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ly.moon65@gmail.com
 www.Mylivdream.com

제3회 미주지역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를 체험케 하소서

대상: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장소: 비전 하우스(vision House)
 32949 Oracle Hills Rd Palmdale CA 93550
일시: 2016년 3월 13일(주일) 오후 6:00 ~ 14일(월) 오후 11:00
 (숙식등 일체의 경비 부담이 없습니다.)

초대의 말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일 것 같은데 그 안에 위로가 있고 힘이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온 몸으로 체험하면서 첫 사랑과 사명이 회복됐습니다.
 오십시오. 정중히 초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남모르는 주의 은혜와 치유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미주 십자가 영성원 공동 대표: 이명수 목사 연락처: (213) 675-8291



킹덤드림 컨퍼런스를 마친 후 천관웅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을 품게 하소서”

킹덤드림 컨퍼런스 통해... 청년들 부흥 경험해

킹덤드림 인터네셔널(Kingdom Dream Intl)은 2월 12일-13일에 걸쳐 “미국을 품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세리토스동양신학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에서 킹덤드림 컨퍼런스를 열었다. 주강사는 천관웅 목사(뉴사운드교회 담임목사), 조영태 선교사(영국 웨일즈 지역), 탁영철 목사(산호세 제자들교회), 김만섭 목사(라스베가스 영광장로교회), 최순환 목사(미주 킹덤드림 디렉터)가 나섰다.

킹덤드림 컨퍼런스는 2번의 저녁 부흥회와 5번의 주제 강의로 구성되었으며 매시간마다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특별히 작년 10월 미주 지역에서 열린 킹덤드림 콘서트에서 ‘평생 목사, 평생 선교사’로 헌신한 인원들이 다수 참여하였으며

LA뿐만 아니라 산호세 지역과 라스베가스 지역 청년들도 부흥을 사모하며 참석했다.

천관웅 목사는 첫째 날 저녁 부흥회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둘째 날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사역에 헌신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여 청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줬다.

최순환 목사는 “킹덤드림 컨퍼런스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품게 되어 감사하다. 강력한 예배를 통해 영적 돌파를 이루며, 그것을 경험한 청년들 스스로가 제자 삼는 일에 헌신되어야 미국 땅에 부흥이 온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킹덤드림 인터네셔널은 2011년 한국에서 시작되었으며, 2015년 미서부 킹덤드림 콘서트를 통해 미

국에 소개되었다. 모든 사역은 스태프들 자비량과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미서부 킹덤드림 콘서트 당시 산호세, 라스베가스, LA에서 총 2200명의 예배자가 모였고, 90명의 “평생 목사, 평생 선교사” 헌신자가 배출되었다. 또한 지역 내 교회와 선교단체에 헌신자들을 연결해 주는 팔로업 사역도 담당하고 있다.

美 50개 주에 킹덤드림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는 킹덤드림 인터네셔널은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美 동부 킹덤드림 콘서트를 진행한다. 보스턴,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워싱턴, 애틀랜타 지역에서 행사가 예정돼 있다.

문소현 기자



미션크리스찬대학교에서 김정욱 목사 안수식이 거행했다.

“미션크리스찬대학교 김정욱 목사 안수식”

미션크리스찬대학교 및 대학원(총장 윤요한 박사)은 지난 2월 22일 대학 강당에서 김정욱 목사 안수 및 임직예배를 엄숙히 거행했다.

학장 정 윤 박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식은 조영제 목사, 한 진 목사, 오기열 목사, 현근석 목사, 류창식 목사, 김동환 목사, 김영민 목사, 권오균 목사 등 교수진 일동이 각 순서를 담당했다.

이 대학교 남성중장단과 합창단(지도: 정애니 교무과장)의 찬양에 이어서 총장 윤요한 박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이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이 길은, 세상에 속한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희생의 길이요, 험한 십자가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학교 문의: 562-869-7497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남부개혁신학대학교 연합 세미나 개최

남부개혁신학대학교 엘에이 캠퍼스(대표 학장 김희창 박사)는 문화교류학, 선교학, 목회학 박사과정 연합 세미나를 2월 21일 저녁 6시 30분부터 진행했다. 한 주간 계속된 이 세미나

에서는 논문진척 성경강해법, 전략적 선교정책에 대해 김수영 박사, 정용갑 박사, 김경준 박사, 김희창 박사가 각각 인도했다.

▲문의: 213-219-0649



남가주 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청년들과 유치부 사론찬양대 어린이 40여 명이 2월 20일 웨스트 민스터 소재 웰컴 크리스찬 양로병원을 찾아 한국 동요와 율동을 선보이고 섬김의 시간을 가졌다.

“사랑 전령사 ‘샤론찬양대’ 천사들의 합창”

남가주사랑의교회 청년들과 유치부 샤론찬양대...양로병원 찾아 한국 동요와 율동으로 섬겨

“아이고, 곱고 예쁘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아이들의 깜찍한 갑돌이갑순이 율동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입가에 절로 흐뭇한 미소가 번진다. 남가주 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청년들과 유치부 샤론찬양대 어린이 40여 명이 2월 20일 웨스트 민스터 소재 웰컴크리스찬양로병원을 찾은 섬김에 대한 화답이다.

이날 유치부 소속 샤론찬양대 아이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

한 찬양과 동요, 그리고 율동을 선보이자 어르신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순서가 끝나고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단체로 세배를 드리고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직접 만든 손카드를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해드리자 몸이 불편함도 잊은 듯이 시간 만큼은 모두 즐거워했다.

이 양로병원 사역은 원래 남가주 사랑의교회 청년부가 2001년부터 16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달 한 번씩

찾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르신들 섬겨왔던 사역이다. 그런데 여기에 유치부 샤론찬양대가 콜라보레이션으로 함께 봉사를 함으로 더욱 활기차고 풍성한 사역으로 확장됐다.

한편 22년 역사의 샤론찬양대는 양로병원 방문 봉사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봉사 및 일본인교회, 히스패닉 교회등을 섬김의 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

[자료제공:남가주사랑의교회]

제3회 십자가의 길

주님의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면서 그 순간 주의 은혜와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세 번째 ‘십자가의 길’ 시간이 마련된다.

▲일시: 3월 13일(주일) 오후 6

시부터 14일(월) 오후 11시까지

▲장소: 비전하우스

▲등록비: 무료

▲주최: 미주십자가영성원

▲신청문의: 213-675-8291

고침: 지난호 미주기독교한의사협회 영성세미나 기사 중 마가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로 정정합니다.

SAS 인가컨설팅 비영리단체, 선교회, 연구소, 종교특례 대학 및 일반대학 설립인가 미 전역 종합서비스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장재효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목회 57년 돌아보니 불초한 종 쓰신 하나님 은혜뿐...”

목회 인생 반 세기를 넘겨서도 아직 전 세계를 돌며 제자를 세우는 장재효 목사 (서울 성은교회 담임)

주제: 구령성과 위한 바른 목회 특별세미나

- 2월 25(목) 오후 7:30 UCS 신학대학교 특강
- 2월 28(일) 오전 11:30 남가주임마누엘교회 (박용일 목사)

- 집회 문의: (213)739-0403, (213)434-1170
- 주최: 성은 바른목회 연구원



장재효 목사
서울 성은교회 담임

후원 : 남가주한인목사회, 기독교방송, 복음방송, 남가주여성목사회, Cts 기독교방송, 기독교일보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만 생명 걸고 집중하며 목회를 감당해 왔던 이영환 목사(대전 한밭제일교회 담임). 그 광야와도 같은 길을 뚫고 나가며 차고도 넘치게 받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고자 시작된 장자권 세미나. 2월 29일(월)부터 3월 2일(수)까지 이곳 미주 예나하임 지역 UBM교회(담임 앤드류 김 목사)에서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시간이 마련된다.

2016 미주 목회자 장자권 세미나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림”

2월 29일~3월 2일, 예수님의 기도학교 통해 쉽고 가볍고 재밌는 목회를 꿈꾸라

“이 시대는 영적전쟁 시대다” 과학문명이라는 미명하에 사단의 권세가 세상을 악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사단은 인터넷을 통한 SNS, 스마트폰 사용 등, 미디어를 이용해 성도들의 영성을 망가뜨리고 있다. 성도들로 하여금 전혀 백해무익한 세상이라는 틀에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 음란하고 자극적이기까지 한 사악한 폐해에 성도들은 시나브로 그 낮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인하여 교회도 점차 힘을 잃고 와해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 먼저는 목자가 살아야 한다. 목자가 살아야 양도 살 수 있다. 그래야 무너져가는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 부흥을 맞보고 살아나는, 살리는 교회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키를 나누는 시간이 펼쳐진다. 바로 이영환 목사가 인도하는 장자권 세미나 시간이다.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 자

녀의 권세누림”의 이 장자권 세미나는 목회현장이 “오직 말씀목회, 기도목회, 행복목회를 간구하고 갈망하던, 낮은 자존감 짙은 열등의식으로 그저 시골 30여 명 목회가 꿈이었던 한국 대전 제일의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가 35년의 목회사역에 걸쳐 일구어낸 “말씀훈련 세미나”다. 본 세미나는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목회의 원동력인 핵심말씀을 정리한 “말씀훈련 세미나”로 지난 수년 동안, 한국을 시작으로 26개 국의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 그리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수만 명의 참석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자들이 새 힘을 얻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수많은 삶의 변화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온 귀한 세미나다. 작년에 이어 이곳 미주 지역에서 다시 개최하게 된 이 세미나는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학교”편으로 진행된다. 그 이유는 결코 녹록지 않은 이민목회 현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오직 말씀목회, 오

직 기도목회,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행복목회, 기쁘고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특별히 준비됐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목회는 “기도목회, 말씀목회”가 답이며 현재진행형이다. “말씀과 기도 목회”만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개최되는 “기도편 목회자 세미나”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불처럼 뜨겁게 살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영성이 순수한 처음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영인 기자

- ◆장자권 세미나 일정◆
▲일시: 2월 29일(월)~3월 2일(수)
▲장소: UBM교회
▲주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26
▲등록비: 100불 (목회자 부부도 100불)
▲등록방법: UBMCHURCH.COM
▲등록문의: 714-634-8360
▲이메일: USA.SONSHIP@GMAIL.COM

“남가주교협 사랑의 쌀 모금 현황”

총 모금액은 22,530달러... 19,352달러 더 필요해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교협)의 올해 사랑의 쌀 나눔운동은 현재 추가 모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월 18일 발표된 결산 보고에 따르면, 총 모금액은 22,530달러였지만 25,734.74달러를 지출해 현재 3,204.74달러가 적자다. 8개 기업, 17개 단체와 함께 10여 명의 개인이 이번 모금에 참여했다. 교계 단체 중에는 남가주교협 김재울 수석부회장이 목회하거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나성소망교회, 갈릴리신학대학, 소망기도원이 총 10,000달러를 헌금했고, 주님세운교회가 2,000달러, 충현선교교회가 1,500달러, 미주평안교회가 1,000달러, 새생명비전교회가 1,000달러를 헌금했다. 한기총 미주총회가 1,000달러, 열린문교회가 500달러를 했으며 미주제일교회, 미주베델교회, 나

성주님의사랑교회, 동부사랑의교회 등도 헌금을 했다. 이번 사랑의 쌀 운동 기간 중 남가주교협에는 사랑의 쌀은 6,616포, 사랑의 담요는 100장 신청이 들어왔지만 쌀 4,813포와 담요 100장만 배포된다. 남가주교협은 “후원금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신청자 가운데 노인아파트 거주자를 제외한 일부만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담요 100장은 모두 배포가 끝난 상황이며 쌀은 4,813포 가운데 2,389포가 배포됐고 64포는 배포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가로 2,360포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가주교협의 자료에 따르면 2,360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쌀 한 포대를 8.20달러로 계산해 19,352달러가 더 필요하다. 김준형 기자



장재효 목사 초청 구령성과 위한 특별 세미나가 한인여성목사회 주최로 2월 23일 한우리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성령충만함 입은 목회해야”

한인여성목사회 주최... 장재효 목사 초청 세미나 열려

한인여성목사회(회장 강지원 목사) 주최 장재효 목사 초청 구령성과를 위한 특별 세미나가 2월 23일 오전 강지원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한우리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30여 명의 한인여성목사회 회원 중심으로 열렸다. 강지원 목사 사회로 시작된 세미

나는 이순자 목사(실로암교회)가 대표기도를 한 후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강사 장재효 목사는 성경말씀 사도행전 11장과 13,14장을 풀어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를 하라는 요지의 메시지를 전하며 결코 쉽지 않은 이민사회 속에서의 여성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장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인위적인 목회는 내려 놓아야 한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천국에 들어갈 온전한 자격을 갖추는 목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모두 마친 후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하는 친교의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장 목사는 여성목사들에게 권면하며 멘토 역할을 할 자청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인규 기자

Advertisement for Hyundai car sales. Text: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Includes Hyundai logo and contact info: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Advertisement for Saevit Acupuncture Clinic. Text: "새빛한의원", "213-389-8275",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Includes clinic address: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Large advertisement for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xt: "Welcome to a better world", "KONICA MINOLTA bizhub", "교회 및 자선, 비영리 단체는 특별한 혜택". Includes product images and contact info: Sales Representative: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Lists models: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에베소교회의 진단과 경고

요한계시록 2:1-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요한계시록 2:1-7

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1. 에베소교회를 향한 주님의 가슴앓이

본문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중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에베소교회를 영적으로 진찰하신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1장 18-20절에 보면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찌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왕래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촛불을 밝히시고, 그곳에 사자를 세우셔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 받게 하십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는 목적으로 끊임없이 보살피시고 가꾸시며 잘못된 것을 지적, 책망하시고 때로는 칭찬으로 장려하시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진리를 성령으로 깨달아 믿어지게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한 구원과 영생복락의 후사가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꺼이 목숨이라도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다짐했던, 성령충만의 첫 사랑을 변함없이 계속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교회를 통하여 장차 이 세상에 세워질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2. 순전하고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디옥이었는데, 이방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곳입니다. 바로 이 세 지역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붙들어 쓰신 비중 있는 의미와 교훈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뜻은 ‘인내’입니다. 이 에베소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대단히 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희생과 은혜에 빛난 심령들로 구원 얻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목숨이라도 바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보면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선한 행실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는 목적의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는 것이 선한 행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의 수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육신이 부담되고 손해 보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참고 견디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의 목적은 영적인 성과를 위한 수고였습니다. 이것은 본인뿐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천국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 얻을 수 있도록 구원 얻게 하는 수고가 하나님 맘에 드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칭찬하신 것은 악을 미워함으로 그 악한 사실을 드러내어 악한 자들을 교회에서 추방했다는 것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교회의 은혜 분위기를 해치고 목회자들을 비방, 대적하

며, 양떼들을 실족시킵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에베소교회는 교리에 굳건히 서 있다고 했습니다. 교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말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교의신학(敎義神學)’이라고 합니다. 에베소교회는 교리가 정통한 교회로서 굳건히 세워져 있어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소망을 위한 질서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 참으로 정통하고 온전한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드나들며 기대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명분과 입지를 위한 또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난 잘못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교회를 향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책망하시며 권고하십니다.

3. 잃어버린 바 된 첫 사랑의 회복

먼저 서둘러 회개하라 하십니다. 육에 속한 생활에 잘못 변질되어 버린 신앙을

회개하고 영적인 가치 소망을 예수님께로 집중해서 다시 예수님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서두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절 15절에 “화 있을찢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가짜 신자가 전도를 해 오면 그 가짜 신자를 보고 교회를 다니다가는 배나 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만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있다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없애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교회와 같이 우리들도 첫 사랑을 버리고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영적인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예수님과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내세 소망을 목적으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 되실 것이며,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살리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훗날 이 세상이 다 불타 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질 때, 그곳에서 영생하는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희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Christian Preschool 원장 초빙

2016학기 Christian Preschool 자체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을 초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돌보며 Preschool 운영에 열정을 가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 격: 원장 Director License 소지자
State Policy 규정에 의해 Preschool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유경험자
한국어 / 영어 Bilingual 필수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

제출처: 선한목자교회
우편접수: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이메일접수: info@sunhanchurch.com

문의: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성백승 칼럼

숫불을 머리에 쌓으라



성백승 교수
미드웨스턴대 실천신학

성 프란체스코는 일찍이 “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이라는 기도를 드렸다.

목회 초년병 시절 “목사님, ‘네가 숫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의미가 뭐예요?”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여 몹시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그 후 뜻을 찾아보니, “오허려 원수에게 숫불을 제공함으로써 따뜻한 온기와 양식을 조리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숫불이 너무 소중하여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리고 운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등으로 해석되며 용서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다.

철학에서 말하는 용서는 용서하는 자가 당연히 품을 수 있는 분노를 포기하고 가해자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적 정의는 ‘송고하고’ ‘회복을 가져다주고’ ‘용기 있고’ ‘건강한’ 행위인 “진정한 용서”와는 구별된다.

피아제는 완벽한 상호성에 대해 언급하며, 모든 사람이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는 가정 속에서 용서를 정의한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피아제나 철학자들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서 명확한 사실로 나타나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피아제가 주장한 것처럼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

는 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등한 위치는 피아제의 주장에서처럼 가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명확한 사실인 것이다.

성경의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진정한 용서란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하고 이 용서를 대인관계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깊고 부당한 상처를 준 상대에 대해 갖는 부정적 판단, 감정, 행동을 극복하고 상대에 대해 긍정적 사고, 감정, 행동을 갖게 되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으로 대인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진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적인 안녕과 넘치는 생명의 삶을 발견하고, 재창조 하는 일이다.

용서하다로 직접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는 “살라흐”인데, 그 뜻은 ‘들어 올림으로 가볍게 한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며 죄 용서와 관련 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어깨에서 죄책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림으로 그 사람의 삶을 가볍게

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구약성경에서의 용서는 ‘형벌에 대한 면제’라기 보다 ‘하나님과 용서받은 사람 사이의 화목’에 초점을 둔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으로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공의에 어긋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었다.

“네가 숫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라는 의미를 존 칼빈, 메튜헨리, 에머슨, 크랜필드, 박윤선, 핸드릭슨 등은 공통적으로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원수에 대하여 친절과 필요를 채워줌으로 원수들의 양심에 호소하여 내적 수치심을 일으켜 그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른다라는 것이다. 구약에서 숫불의 의미는 심판의 메시지와 회개의 의미, 그리고 원수에 대한 보응의 이미지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은 잠언 25 장 21-22 절을 인용하여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말하였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음식을 대표하면서 인간의 필요를 상징한다. 이렇게 원수의 필요를 공급할 때 “네가 그의 머리에 숫불을 쌓아 놓으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면 핀 숫을 머리에 놓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수에 대한 보복으로 원수를 갚는 것보다 더 값진 승리이며 원수가 되었던 자가 친구로 돌아와 자기의 삶을 풍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필자는 톰팰이팔(롬 8:28)을 좋아한다. 그와 내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려하는 마음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배려하는 마음은 성숙한 마음이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한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줄 안다. 배려는 자신을 잘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신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

예수님은 “네 이웃을 제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 22:39)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먼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먼저 자신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도 배려할 수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멀리하거나 확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진정한 자기 사랑과 돌봄 그리고 배려로부터 이웃을 향한 성숙한 사랑과 돌봄과 배려가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배려란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다.

역지사지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는 소통의 부재 속에 살고 있다.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상대방의 언어로 대화한다면 소통이 잘 될 것이다.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면 소통은 쉬어진다.

배려하는 마음은 이웃을 향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관심을 갖게 되면 관찰하게 된다. 배려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중에 상대방의 고통이나 필요를

헤아리는 것이다. 배려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다. 한 시각 장애인 배려에 대한 이야기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다.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바바 하리디스(한상복, 『배려, 마음을 움직이는 힘, 위즈덤하우스 58쪽, 재인용』)

시각 장애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등불을 들고 길을 걸었다. 배려하는 마음은 넓은 마음이다. 마음이 좁으면 다른 사람을 담을 수가 없다.

박노해 시인은 “나쁜 사람”이란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나쁜 사람이 나쁜 것은 마음이 자신으로 가득차 있어 이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배려하면 마음이 넓어진다. 마음이 커진다.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큰 사람이 된다. 우리는 재능이 좋은 사람보다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오랫동안 기억한다. 이철환씨는 《못난이 만두 이야기》에서 “당신의 재능은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되지만, 당신의

배려와 인간적인 여백은 사람들 가슴 속에 기억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더욱 밝고 아름다워 질 것이다.

이번 뉴질랜드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 집회에서 다섯 목회자가 함께 사역하며 10일 정도를 함께 지냈다. 두 대의 차를 번갈아가면서 탔다. 때로는 속도도 조금 불편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배려했다. 서로 뒷좌석에 앉기를 힘썼다. 서로 좋은 침실을 양보했다. 서로 섬겼다. 다섯 목회자 가운데 가장 연장자라는 이유로 그들은 필자를 많이 배려해 주었다. 이번 여행에서 필자는 배려가 주는 진한 감동을 마음에 담아 왔다.

뉴질랜드의 자연은 정말 아름다웠다.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이었다. 하지만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아름답지 않았다. 배려하는 마음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배려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안쓰러워하는 마음이다.

이웃이 괴로워하면 다가가 위로해 주는 마음이다. 이웃이 우는 것을 보면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다. 이웃이 잘 되면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이다. 한때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를 기억하질도 모르겠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짧은 말에 수많은 사람이 공감한 까닭은 이 말 속에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한결 같이 힘겨운 싸움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배려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우리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자. 배려의 모범을 보여주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격동하는 지구촌의 종말론적 시대상황에 대한 선교전략의 재정립을 위해!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을 위한 위대한 선교비전과 긴박성의 재확인을 위해!
 700만 한인디아스포라와 7000여 한인디아스포라교회의 선교적 대각성을 위해!
 국내외의 최고 강사진 200여명과 세계한인선교사 1200여명을 비롯한
 목회자, 평신도, 청년,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및 선교사자녀(MK) 등
 도합 5000여명의 집결을 예상하는 이 시대 최대규모의 동반자 협력선교의 대광장!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로렌 커닝햄 YWAM 총재, 데이빗 로스 안디옥커넥션 대표, 폴 애실맨 CRU 부총재, 론 스미스 YWAM SBS 성경학교, 타드 존슨 고든컨넬 교수, 존 왈러스 아주사대학교 총장, 서삼정 아틀란제일장로교회, 한기홍 은혜한인교회, 김남수 프라미스교회, 장영춘 쾨츠장로교회, 나광삼 쾨무리교회



고석희 KWMC 사무총장, 이승중 샌디에고예수마을교회, 김혜택 뉴욕총신교회, 배현찬 주예수교회, 호성기 필라델피아교회, 정인수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이동휘 바울선교회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채수일 한신대학교 총장, 강승삼 KWMA 전회장, 박기호 플러신학교 교수



김양재 우리들교회, 오정호 세로남교회, 장상길 송도주사랑교회, 마이클오 국제로잔운동 총재, 이동열 GKYM 사무총장, 송충석 KWMF대표회장, 안성원 KWMF사무총장, 한도수 KWMF공동회장, 김중국 KWMF공동회장, 박명하 KWMF공동회장, 강대홍 태국선교사



강성일 브라질선교사, 이극범 프랑스선교사, 최광규 도미니카선교사, 김영관 베트남선교사, 김경일 KWMF사무총장, 김정환 미주선교사, 정석천 태국선교사, 최용순 가나선교사, 이금주 말레이시아선교사, 김승호 일본선교사, 장영호 러시아선교사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전세계 한인선교사 1,200명



오정호 세로남교회,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진재혁 지구촌교회, 김양재 우리들교회, 김동엽 목민교회, 김문훈 포도원교회



스콧스키스트 플러신학교대학원장, 고석희 KWMC 사무총장, 한정국 KWMA 사무총장, 최형근 서울신대 교수, 김병운 필리핀 선교사, 강운식 기쁨병원 원장

등록문의 www.kwmf.info / kwmf2016@gmail.com
KWMF • 인도네시아 62-813-8100-9905, 070-8221-1361 • 미국 1-213-507-3875

KWMC2016 6월 6-10일	일반 (만26세 이상)	대학생/청년 한어권/영어권 (만18~25세)	청소년 (만13~17세)	초등학생 (만7~12세)	아동 (만3-6세)
1차 3/31 마감	□ \$300	□ \$200	□ \$150	□ \$100	□ \$50
2차 5/15 마감	□ \$325	□ \$225	□ \$175	□ \$125	□ \$75
3차 6/5 마감	□ \$350	□ \$250	□ \$200	□ \$150	□ \$100
KWMC 대회숙박	□ 기숙사 2인1실 \$150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2 베드룸) \$200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1 베드룸) \$215 /1인당 (4박5일)			동숙 무료 별도침대 □ \$50	

*숙박을 안하실 경우 등록금만 내시면 됩니다. * 하루만 참가하실 경우(DAY-PASS) \$100 입니다.
 *한 교회에서 단체등록시 10명 이상은 등록금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숙박비 예외)

제3차 선교사자녀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17세 이상 선교사 자녀 400명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KWMC2016!
 KWMC2016은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선교대회입니다. 아래 대회들은 모두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와 동일한 일시인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동일할 장소인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개최됩니다.

영어권대회 English Conference

18세 이상 영어권 대학생/청년
이동열 선교사 GKYM 사무총장

어린이선교대회 **청소년선교대회**

3-12세 **여병현**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13-17세 **고현진** 전도사 **고유진** 전도사

일시	대회	대상
6/3(금)-6/6(월)	한인세계선교사대회	전세계 한인선교사
	MK(선교사자녀)대회	17세 이상 선교사자녀
	MK청소년선교대회	13-16세 선교사자녀
6/6(월)-6/10(금)	MK어린이선교대회	3-12세 선교사자녀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18세 이상 한어권
	차세대영어권선교대회	18세 이상 영어권
	청소년선교대회	13-17세 청소년
	어린이선교대회	3-12세 어린이

등록문의 **KWMC**
 온라인등록 ▶ www.kwmc.com
 이메일등록 ▶ kwmc@kwmc.com
 전화 ▶ 516-277-2081, 2082
 팩스 ▶ 516-686-6128
 ▶ 등록비가 인상되기 전에 속히 등록하시고 항공편도 속히 예약하실수록 저렴할 것입니다.

KWMC2016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1330 Wolver Hollow Rd, Oyster Bay, NY 11771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901 E Alost Ave, Azusa, CA 91702





데드풀 스틸컷 이미지 ©이십세기폭스

“영화 ‘데드풀’ 관람해도 될까?”

목회자들 “폭력성·선정성”...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

할리우드 안티히어로 코믹 액션 ‘데드풀(Deadpool)’이 극장가에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엑스맨’, ‘어벤져스’ 등 슈퍼히어로물을 즐겨 보던 기독교인 관객들이라면 흥미를 가질 만하지만 미성년자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은 만큼 높은 선정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관람해도 괜찮을까?’란 고민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미국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봐도 대부분 목회자들 역시 ‘목사님, 데드풀을 봐도 될까요?’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듯하다.

뉴저지 라이프처치의 제이미 모건 목사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폭력과 전라, 불경스러움이 난무하는 영화를 보서는 절대 안된다”고 단호한 견해를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모건 목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시고 그 영화는 그렇지 않다. 더는 이유가 필요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늘날 ‘불경함’을 완전히 피해가는 영화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모건 목사는 ‘데드풀’의 ‘의도적인 불경함을 지적하며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무법 판다

지”라는 미국 기독교계 영화 전문지 ‘무비 가이드’의 비평 일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켄터키 임매뉴얼처치의 론 에드먼드슨 목사 역시 이 영화가 기존에 마블에서 내놓았던 슈퍼히어로물의 팬인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마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에드먼드슨 목사는 “내가 아는 부모들 몇 명은 벌써 아이들이 이 영화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며, “오늘날 우리의 딜레마는 아무도 옳은 것을 택하지 않을 때 옳은 것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마블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데드풀’이 지닌 매력은 이해하지만 이 영화가 아이들에게 초래할 가지 혼란이 염려된다. 영웅이란 어떠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무비가이드’지의 비평가들 역시 도덕과 윤리를 모저리 망가뜨리는 듯한 영화의 선정성을 비판했다. 주인공인 데드풀에 대해 이들 비평가들은 “연로한 시각장애인 여성을 조롱하고 성적으로 희롱하며, 아동 성추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 소재로 삼고 장녀를 유혹하는 캐릭터”라며 경악을 표했다.

손현정 기자

“목회자는 ‘진리’를 말해야 한다”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 모든 길이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은 아니다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

텍사스 주 댈러스에 있는 대형교회인 퍼스트 배티스트 처치 담임 목사인 로버트 제프리스(Robert Jeffries) 목사가 최근 그의 신간 “모든 길이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은 아니다”(Not All Roads Lead to Heaven)에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다원주의가 절대 진리인 것처럼 확산되는 세대를 향해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의 진리를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목회자들을 향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제프리스 목사는 2월 22일 기독교신문 카리스마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늘날 미국 사회는 절대 진리를 상대 진리로 혼동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자신의 개인적 신앙 체계

에 근거해 단지 ‘상대적 진리’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길이라면, 예수께서 혹독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쓸데없고 헛된 일에 불과한 것이다”고 했다.

제프리스 목사는 기독교신문인 ‘바이블 게이트웨이’와의 인터뷰에서는 이 책을 쓴 동기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동성결혼에 대한 공적 영역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독교의 더 기초적인 공간이 되는 신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기독교의 핵심을 잃을 위기에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기독교의 진실을 말하기 두려워하는 목회자들을 향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목회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떠나라’고 강력히 말하며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성도들을 이끄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나 설교자가 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장소피아 기자

“美대선 위한 디시전 아메리카 기도회”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열리고 있는 기도회 디시전 아메리카 투어(Decision America Tour)에 무려 7천여 명이 참석했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美 전역을 순회하며 여는 이 기도회는 대선과 미국의 부흥을 위함이다.

지난 수요일 조지아 주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기도는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조지아에서 약 7000명 넘는 참여자들과 함께 서 있다. 조지아 주 부주지사가 리버티 플라자에서 열린 집회 중 참석자 규모로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이야기했다. 참석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히고, “기독교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기도한다면,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강연에서 그레함 목사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다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미국은 다음 선거철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각 계층을 대표해서 공직에 출마할 크리스천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 크리스천의 목소리가 들려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복음주의 리더답게 “미국은 지금 동성결혼 그리고 낙태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들이 죄라고 불리는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들”이라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크리스천으로서 정치적 의무를 해야 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 만약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독교 유산으로써의 이 자유를 잘 보존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회개치 아니하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국가로서 망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 했다.

교회 및 선교교회

<p>LA 지역</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점중학교 / 토요새벽-17와비몬트코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단(2세)을 깨닫고, 이단(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역을 순회하는 교회</p> <p>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p>	<p>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p> <p>연제선 담임목사</p> <p>LA 온하늘교회</p> <p>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983-9024</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장태원 담임목사</p> <p>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p> <p>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주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p>
<p>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p> <p>한기형 담임목사</p> <p>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p> <p>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오후 1:00 토요일부부 토 오전 9:30-12:30 환어청년부 오후 1:30 아미나기도 모임 수요일 10:30</p> <p>서건오 담임목사</p> <p>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가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pla.org</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환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325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p> <p>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찬 교회</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p> <p>정우성 담임목사</p> <p>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p> <p>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598-0191</p>	<p>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일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p> <p>산타모니카찬송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p>
<p>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p> <p>조인수 담임목사</p> <p>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복된 모임 오전 11:00</p> <p>김영구 담임목사</p> <p>나눔장로교회 엔키아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p> <p>3407 W. 6th St. #804, Los Angeles, CA 90020 T. (310) 404-6219</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p> <p>김요섭 담임목사</p> <p>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서와 월토 옆) T. (213)380-0071</p>	<p>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p> <p>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네티트 전판)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p> <p>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p> <p>요한 선교교회</p> <p>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p> <p>류종길 담임목사</p> <p>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성도, 친척, 장인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민중기 담임목사</p> <p>충현선교회 불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곽부환 담임목사</p> <p>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강지현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은혜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p>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p> <p>Bryan Kim D.M.D.</p> <p>김범수 치과</p> <p>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 (213)389-0937, (213)389-0938 F. (323)735-1937</p>	<p>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용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p> <p>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p> <p>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7:00,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선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말학교 주일 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김성민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 872-2405 / F.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목) 6: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목) 오전 10:00-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 hnslla@hnslla.org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다민족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 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 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 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0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림회 금요일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n.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1:00

장애우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김비율 담임목사

도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말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F. (818) 882-9777 / www.churchmanmam.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Awana 오후 8:00 (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6:00 (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진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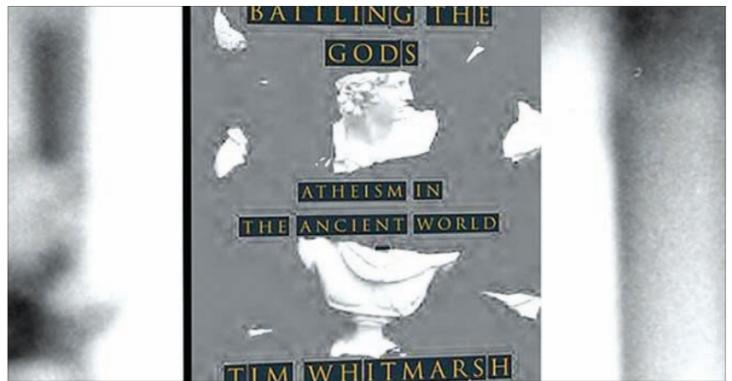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성령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LA에베레소 주일예배(영성예배) 9:30am, 11:30am
수요말씀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5814 39th St., Northridge, CA 91328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무신론의 뿌리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무신론은 고대에도 존재”

엡케임브리지대 워트마시 교수... 무신론, 서양계몽주의에서 나온 현대적 발견 아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그리스 문화학과의 팀 워트마시(Tim Whitmarsh) 교수는 자신의 신간 '배틀링 더 갓스'(Battling the Gods)에서 "다신교 문화를 가진 고대 그리스에도 무신론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워트마시 교수는 "이 책은 천 년 동안 기독교의 맹비난에 묻힌 고대의 무신론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디언지와 인터뷰에서 "무신론은 서양의 계몽주의에서 나온 현대적 발견이 아니며, 사실은 그 기원이 고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명한 사회과학자이자 베일러대학교 종교연구소 소장인 로드리 스타크(Rodney Stark) 박사는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38권의 책을 저술한 스타크 박사는 CBN과의 인터뷰에서 "부적응자들은 항상 일부 존재했을 것이고, 무신론자들은 모든 시대에 걸쳐 드물었다"고 했다.

워트마시 교수는 "종교가 인간에게 고착된 것으로 보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종교적인 신념과 관련해 인간에게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나 스타크 박사는 '고착화되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나는 '고착화된' 이론을 수용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국가들이 對테러전 앞장서야”

사우디 투르키 알 파이잘 왕자... 이슬람 국가들 反테러 동맹 서둘러야 주장



사우디아라비아의 투르키 알 파이잘 왕자. ©wiki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이슬람 국가들이 對테러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르키 알 파이잘 왕자는 파키스탄과 요르단, 수단 등 걸프지역 20개 국가들의 합동군 사훈련 중인 2월 21일(현지시간) 나온 발언으로, 그는 "34개 국가들이 이슬람 反테러 동맹을 서둘러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자는 사우디 정보부 책임자와 주미 대사를 오래동안 역임했다고 한다. 그는 이날 아부다비에서 기자들을 만나 "테러 피해자 대부분은 무슬림들"이라 말하고, "폐단에 맞서는 싸움에 이슬람 국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와 시

아프 중중국 이란의 첨예한 대립에 대해서 "공은 이란에 있다"고 지적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국가들의 내정 문제에 대한 이란의 깊은 간섭을 묵과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명한 시아파 성직자가 사형 집행에 당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란 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한 습격 시위가 벌어졌으며,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외교 및 무역 거래가 중단됐다.

또 사우디와 이란은 각각 시리아 및 예멘의 내전에서 상호 반대편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이슬람연합군의 국방장관 첫 회의가 다음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을 예정이다. 회원들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이지만, 이란은 제외되어 있다. 더불어 이라크, 시리아 등 이슬람국가(IS)와 싸우고 있는 곳들이 빠져있다.

“IS외국인 지하디스트 1만명 이상 감소”

이슬람국가(IS) 외국인 지하디스트들이 2만 5천 명 선으로, 과거보다 훨씬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맥거크 美 IS격퇴담당 대통령 특사가 2월 23일 밝힌 바에 따르면, IS의 외국인 전투원은 120개 국에서 모여들었지만, 과거 많을 때 3만 5천 명 선에서 현재 1만 명이

양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IS는 미군 등 연합군의 공습으로 원유 밀매 루트를 잃어버리고 현금 보관소 등도 폭격 당하는 등 심각한 재정 타격을 입었다. 때문에 대원들 월급도 절반으로 줄었고,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S, 아시리아 기독교인 230명 모두 석방”

이슬람국가(IS)가 지난해 시리아 북동부에서 인질로 붙잡았던 아시리아계 기독교인들 230명 중 나머지 43명도 모두 석방했다고 최근 지역 기독교계 관계자

가 말했다. IS는 지난해 2월 시리아 북동부의 하사케주 카부르강 남부에 소재한 아시리아 사회를 급습해, 약 230명의 기독교인들을 잡아 갔었다.

“유로폴...EU시민권자 중 지하디스트 5천 명”

유럽연합(EU) 시민권자 중 중동에서 이슬람국가(IS)의 훈련을 받고 유럽에 돌아온 지하디스트가 3천에서 5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유로폴 수장이 경고했다.

롭 웨인라이트 유로폴 국장은 19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독일 일간지와 인터뷰에서도 "유럽은 현재 심각한 테러 위협에 직면했다. IS 또는 다른 종교적 단체가 유럽에서 민간인을 목표로 대량 사상자를 낼 수 있는 테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테러리스트들이 유럽에 침투하기 위해 난민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했다.

웨인라이트 국장의 이 발언은, 작년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용의자 2명이 난민으로 위장해 유럽에 들어 왔다고 오스트리아 경찰이 최근 밝힌 후 나왔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검찰은 28세 알제리인과 34세 파키스탄이 난민으로 위장해 유럽으로 들어 왔고, 그들이 파리 테러범들 일부와 함께 그리스에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리아 검찰은 두 용의자가 파리 테러에 가담하려고 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이들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 받은 또 다른 용의자 2명도 체포했다면서 체포된 4명이 모두 IS 대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日기업들, 동성애자들 고려 정책 유행하나”

일본 기업들이 동성애자 등 소위 성소수자(LGBT)들에 대한 인식을 시작했다고 최근 교토통신이 보도했다.

아픈 아이를 위한 보육사업 단체인 ‘폴로렌스’는 작년부터 채용할 때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외’라는 성별란이 있는 이력서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자신이 인식하는 성을 적으라”는 별도 항목도 추가했는데, 자신의 성에 위화감이 있는 이들을 배려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노무라(野村) 증권은 졸업자 채용 시 LGBT 차별 금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경영 파탄으로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가 사업을 인수한 후 문화가 유입, 2009년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일본 IBM은 올해 1월부터 동성결혼 축의금과 휴가 제도가 가능하게 됐다. ‘이온’사는 2015년 그

내 계열사의 관리직 1천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NTT그룹도 올해 2월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연수를 진행했으며, ‘성별을 바꾸고 싶다’는 신청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노인보호시설 소개업종인 ‘에미멘’(笑美面)은 다가오는 3월 구직 중인 LGBT와 사람을 찾고 있는 개호(介護) 사업자를 연결시키는 취지 이벤트를 동경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나소닉은 사원의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교토통신은 기업들의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인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도 봤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동성결혼은 불법이다. 다만 작년 동경 시부야구(東京都 渋谷区)가 동성커플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IS, 모로코에서 화학무기 테러 시도”

이슬람국가(IS)가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사건이 벌어졌다. 모로코에서 IS대원들이 화학무기 테러를 벌이려다가 사범당국에 붙잡혔기 때문이다.

2월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모로코 중앙 사범조사국(BCI)이 IS대원 10여 명을 국가안보위협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화학무기를 살포하고, 자살테러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지난 18일 이산화황 등의 화학 약품이 담긴 6개의 단지를 준비해 가스 테러를 준비했으며, 폭탄에 화학 물질을 삽입해 퍼뜨릴 예정이었다. 또 파상풍 등을 일으키는 독극물 투파도 계획 했었다고 한다.

한편 BCI 한 관계자는 이들이 4개의 총과 13개의 가스폭탄 등을 준비했다고 밝히고, IS의 깃발도 발견했다고 전했다. BCI는 이들 무기들이 리비아를 통해 반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려되는 美교회 성향 5가지”



켄함 목사 ©크리스천포스트

창조론을 지지하는 단체인 AIG(Answers in Genesis)의 CEO이자 대표인 켄함 목사는 최근 “미국 교회의 우려되는 5가지 트렌드”라는 칼럼을 통해 교회 안에 우려되는 5가지 트렌드가 있다면서 특히 늘어가는 자유주의 목회자들과 기독교를 거부하는 청년들이 가장 큰 근심이라고 말했다.

1. **하나님 말씀에 몰타기 (몰탄 복음)** 거저의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물을 타고 있다. 현재 우리 문화는 동성결혼을 지지하면 관대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더욱 더 많은 교회들이 문화와 하나님 말씀에 타협점을 찾고 있다.

켄함 목사는 “교회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충족시켜 주는 장소가 되기보다 가벼운 귀를 만족시켜주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 **“결혼과 성별,성” 세속적 문화의 압박** 켄함 목사는 “교회가 결혼과 성별, 그리고 성에 대한 세속적 문화에 동조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면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단체들은 이미 이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3. **낙태 문제에 대한 압박** 켄함 목사는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해서 교회가 받는 압박도 증가할 것”이라면서 “기독교 단체들은 자신들의 양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거부해야한다”면서 “보건료로 계획(healthcare plans)에 따른 낙태나 낙태 유도 약품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4.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켄함 목사는 “목회자들이 논쟁의 여지가 많은 쟁점에 대한 언급을 회피함에 따라 신자들의 영적 성장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 교회에 나오는 젊은 세대 역시 사회 윤리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대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많은 청년들이 세속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면서 “슬프게도, 대학생 나이에, 청년 중 3분의 2는 교회를 떠나거나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대신 세속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슬프게도, 대학생 나이에, 청년 3분의 2는 교회를 떠나거나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있다. 그들은 성경에 기초해 살아야 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수호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5. **자유주의적인 목회자들의 증가** 켄함 목사는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적인 목회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모든 문제들이 이들 자유주의적 목회자들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에 기초해 사고하도록 청년들을 세우고 권면하기보다 성경보다 인간의 사상을 높이고 있다”면서 “그 결과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높이고 영예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슬프게도 신학교에서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된 목회자들에 의해 설교단에서 더 자유주의적인 가르침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美-러시아, 시리아 ‘휴전합의’”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의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시리아에서 실제로 총성이 멎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5년간 이어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난민으로 내몰아온 시리아 내전이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아사드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반군을 지원해온 미국과 아사드 정권을 옹호해온 러시아가 2월 22일 휴전에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한 뒤, 시리아 내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美 백악관 대변인은 “2월 27일까지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두 나라는 IS와 알카에다 등 테러 단체에 대한 공격은 ‘적대 행위 중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의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정부군과 반군이 교전을 멈추기가 어려울 것이라 전망 때문이다. 한편 유엔은 양국의 시리아 휴전 합의와 관련해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시리아 내전에 관련된 당사국에 정전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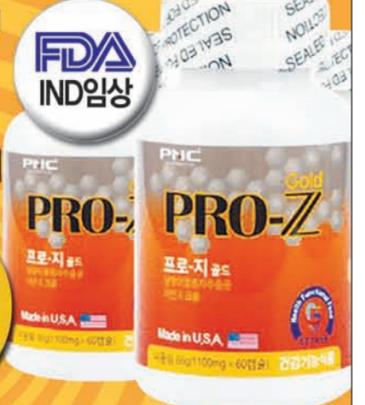
O.C./얼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들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김일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CT(한글) 토 9:30AM-10:00PM 대학원부E:college 주일 2:00PM NC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전날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름날) 7:00am 화요일모기도회 7:00pm 토요일청년예배 7:00p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김명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2:30 나침반 한국교회 주일 오전 9:15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영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대학원예배 오후 2:30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 예배 오후 2:30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생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후 2:30		민경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교회 주일 오전 9:15 영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남가주 베델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 & Puente) T.(714) 521-0991 / F.(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박재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허귀암 담임목사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남가주 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714) 952-0191 / www.socallfgc.com		놀익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일찬양예배 7:3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김일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늘푸른선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714)9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고현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일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교동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김한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 행사바기도회 새벽 6:00		이동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s-9:00-11:00 금요일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예프타스콜 College 오후 1: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권혁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대학원부 오후 2:00 KM대학원부 오후 2: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교동부 오전 11:00 대학원부 오후 1:30	
얼바인 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박경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인터넷 생방송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얼바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0 / (714)833-2568 daekwon.org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4부예배 오후 7:30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림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머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혁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 오후 8:0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최혁 담임목사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일성경집회 :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임경남 담임목사 주일 성령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조원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8:00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gracechurch.org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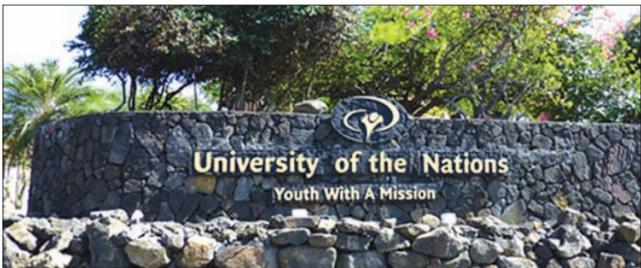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하와이에서 바라 본 아버지의 꿈



하와이 코나의 열방대학.



93년된 영국 성공회 교회(하와이비전교회(담임 정형준 목사)는 이 교회 부속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명확(明確)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를 크게 성경은 대 계명(the Great Commandment)과 대 사명(the Great Commission)으로 말하고 있다.

즉, 주님의 대 계명(마 22:37-40)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님의 대 사명(마 28:18-20) 혹은, 주님의 지상명령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까지 원하시는데 (딤후 2:4), 이는 각 나라와 족속

하와이 열방대학은 지난 37년간 142개국 600곳 100개의 언어로 매년 약 2만 5천명 이상 선교훈련생 배출 현재 약 4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해 한인 이민자 총 4만 명 중 교회 출석인은 12%에 불과 한인교회는 약 80여 개 출석성도도 대부분 50명 미만

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즉,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천국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계 7:9-12).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 계명을 지키는 것(being)이 구체적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화 하는 것(doing)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을 아버지의 꿈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와이 코나(Kona)의 열방대학(the University of the Nations, YWAM 소속)에서 있었던 북한 선교세미나에 특별초청 강사로 참석 했다. 또 호놀룰루 (Honolulu) 비전교회(담임 정형준 목사)에서 선교세미나(2월13일, 토) 개최와 주일설교(2월14일, 주일)를 인도했다.

처음 방문한 코나의 열방대학은

1978년에 개교했는데, 이는 1960년 로렌 커닝햄(Loren Cunningham, 1935-)이 주님께서 주신 비전(세계의 젊은이들을 동원 및 훈련시켜서 세계선교를 감당하게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시작했다. 다시말해 국제예수전도단(YWAM, Youth With A Mission)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역(학사, 준석사, 석사 과정 및 DTS 훈련과정)이 된다.

지난 37년 동안, 전 세계 142개국의 600곳에서 100개의 언어로 매년 약 25,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선교훈련을 받아온 결과, 지금까지 이 선교훈련을 받아온 결과, 지금까지 약 400만 명의 젊은이들이 훈련을 받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을 하고 있다.

그 중, 약 20,000여 명이 YWAM의 사역자로서 190개국에서 자비량으로, 여러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한 사람의 비전과 헌신에 놀랍게 역사하신 주님의 축복하심을 바라보면서 큰 감동에 젖었다.

2월 13일 저녁에는 잠시 호놀룰루 비전교회(담임 정형준 목사, 이 교회는 5년 전 개척하여, 현재 출석 교인이 약 80여 명에 이룸)를 방문하여 선교세미나를 인도하게 되었다.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경적 선교와 역사적 선교 및 전략적 선교의 관점에서 2시간 30분간 진행했다. 파워 포인트로, 본 교회(은혜한인교회) 선교의 간증을 포함, 전 세계 선교의 흐름과 방향, 전략 등을 나눈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이 교회에서 이어진 2월 14일 주일 예배에서는 1부(10여 명의 젊

은이들 대상: “제자의 삶”)와 2부(70여 명의 성인들 대상: “아버지의 꿈”)를 섬기면서 선교적 설교와 필자의 간증들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참고로 호놀룰루에는 약 4만 명의 한인교와 약 80여 개의 한인교회가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출석교인 50여 명 미만이다. 또 전체 한인 중 약 12%정도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1903년1월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최종 입국한 86명(121명이 인천을 출발하였으나, 일본 고베항에서의 1차 신체검사에서 20명이 탈락하고, 호놀룰루 입국장에서 15명이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86명이 입국)으로 시작된 미주 한인 이민은 주님께서 이곳 하와이 뿐 아니라, 미국 전체의 복음화를 위하여 보내신 것임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마치, 1863년, 조선에서의 13가정의 농염이민으로 시작된 연해주(오늘날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지역) 이민이 고려인을 통한 구소련 선교를 위한, 주님의 섭리(攝理)인 것처럼 말이다.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원대한 계획인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다. 그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를 위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길 기도한다. 아멘!

[자료제공:GMI(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양태철 목사]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사역하고 있는 (시계방향으로) 김기태 목사, 박종혁 목사, 정형준 목사 부부와 함께 한 양태철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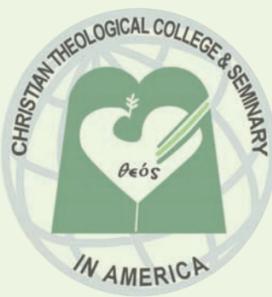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2.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 3.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 4.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 22일

겨울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12월 7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목회
있을지언정 그대로 되나리! 죽았더리!
동역자님의 목회는 **주안에서**
됩니다! 잘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예수님의 기도학교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자녀의 권세누림

낮은 자존감 짙은 열등의식으로 시골 30명목회가 꿈이었던 이영환목사의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목회의 원동력인 핵심 말씀을 정리한
평신도 말씀훈련 교재 『예수님의 기도학교』
20개월만에 7,100여명의 목회자님들과 해외 26개국 선교사님들을
만족케한 검증된 세미나

주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님들!
지난 1년 8개월동안 한국교회 1천여교회 7,100여명의 목회자님들과 26개국의 선교사님들께서 "장자권"
전국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이 펼쳐 가실 목회현장이 오직말씀, 오직기도, 쉽고가볍고 재미있는 행복복회,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기도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해는 "기도목회"가 해답입니다. "말씀과 기도" 목회만이 본질인데 2016년 새로운 목회를
기도로 준비하시는 이 때에 "기도편 목회자세미나"를 통하여 섬기시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불처럼 뜨거워지고, 목회자의 영성을 순수하게 처음사랑으로 뜨겁게 유지시키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평안한 목회의 복을 누리고 금번 기도세미나 말씀훈련교재를 통해
"뜨거운 기도와 강력한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강사 이영환 목사

- 한밭제일교회담임
-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미있게"라고 외치는 목회자
-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자녀의 권세누림』의 저자

기도편 목차

- 제 1과 기도,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따라하라!
- 제 2과 기도, 반드시 초대교회를 배우고 따라하라!
- 제 3과 기도,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오래하는 습관을 가지라!
- 제 4과 기도, 할 수 있는 대로 크게 부르짖으라!
- 제 5과 기도, 할 수 있는 대로 깊고 은밀하게 하라!
- 제 6과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라!
- 제 7과 기도,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하라!
- 제 8과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 제 9과 기도,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다!
- 제 10과 기도, 영적 전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 제 11과 기도, 하늘나라에서 VIP로 취급됨을 주목하라!
- 제 12과 기도, 믿음의 절대 파워다!
- 제 13과 기도, 모든 문제의 완전 해답이다!
- 제 14과 기도, 인생 역전의 지름길이다!
- 제 15과 기도, 사랑의 대화임을 잊지 말라!
- 제 16과 기도, 사명 승리의 유일한 길이다!
- 제 17과 기도, 반드시 먼저 회개를 동반하라!
- 제 18과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라!
- 제 19과 기도, 야곱처럼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라!
- 제 20과 기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라!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자녀의 권세누림』 2016 미주목회자 "기도편" 장자권 세미나 일정안내

일 시 : 2016년 2월 29일 (월) - 3월 2일 (수)

* 구체적인 일정은 홈페이지에 일정표를 확인해주세요.

강 사 : 이영환 목사 (한밭제일교회 담임)

장 소 : UBM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등록비 : \$ 100.00

* 주교재와 세미나 기간동안의 식사는 등록비에 포함되어 함께 제공됩니다.

* 목회자 부부로 등록하실 경우, 등록비는 동일합니다. (목회자부부 2인 : \$ 100.00)

[등록방법] 인터넷 : UBMCHURCH.COM

전 화 : 714-634-8360

문 의 : 714-634-8360 / 714-331-1755

714-501-1337

이메일 : USA.SONSHIP@GMAIL.COM

주 최 : 미주 장자권 세미나본부

협 찬 : PIXELL GRAPHICS / JP Toner & Ink Service

●이슬람 수피즘 연구(3-끝)

이슬람 수피즘의 '인간 신격화'와 기독교 영성의 차이

3. 수피즘의 인간 신격화 신학의 문제점

유신론 내지 범신론적 합일의 수피신학과 병행하며 힌두교의 요가는 범신론적 합일의 신학을, 불교는 무신론적 합일의 신학을 통해 각각 인간 절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합일의 순간을 힌두교 철학은 범아일체를, 불교철학은 열반을 실현한 것이라고 한다.

자아는 없어지고 알라만 남게 된다고 주장하는, 신인융합을 이루려는 수피 기법들은, 힌두교가 그 범신론적 절대자인 브라만과 아트만(인간에 내재한 브라만)과의 융합이나, 불교가 멀어 내지 열반이라고 하는 '무아'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가 기법들과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동일하다.

힌두교의 요가는 힌두교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수행 기법이고, 그 목표는 인간의 자아라는 아트만을 우주의 실재라는 브라만과 합일하기 위해 황홀경이나 최면의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요가의 사상적 기초는 인도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우파니샤드(Upanishaden) 철학적 범아일체 사상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음의 움직임을 다 멸하는 테크닉이다.

Maitrayani Upanishad는 숨 조절, 명상, 감각기관 차단, 사고기능 고정, 몰두 등과 같은 방법과 기술을 통하여 참된 자아를 깨달음으로써 브라만과의 합일을 이루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요가들은 초능력이나 마법열을 얻기 위해서 마취제나 마약, 아편, 최면제를 사용하여 의례적으로 도취하고, 요가의 거장 파탄잘리(Patanjali) 역시 엑스터시를 유도하는 마약 및 약초를 초능력 성취 수단으로 들고 있다.

19세기 불이론(不二論)적 배단 타철학자로 뱅갈의 유명한 라마 크리슈나(1836-1886)는 기독교까지 체험적으로 합일하고 싶어 했다. 그는 1874년 11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그림을 응시하던 중 그 그림에 사로잡혔다. 그는 "문득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그림에 시선을 멈추었다. 신선한 감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가 응시하고 있던 형상들은 생기를 띠었고 그 얼굴에서 나온 빛줄기들이 그의 영혼 속으로 꿰뚫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때 그는 "오 어머니, 제게 무엇을 하십니까?"라고 외쳤다. 이

순간 그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혼을 소유했다고, 그리스도와 영원한 합체를 이루었다고 느꼈다. 이 신비 체험으로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에서 알 수 있듯, 힌두교는 죄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어떤 테크닉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무신론적 자력 구원이다. 힌두교 철학은 모든 복수(단수)의 근거를 '하나'의 근원자(prima causa)에게서 발견하려는 일원론적·범신론적 사상적 체계를 지니고 있고, 그들의 '구원'이란 '복수'의 대립을 없애고 無二(不二)의 신비에 몰입하는 것이다.

힌두교의 구원 방법이 '유신론적인 합일'이든 '범신론적인 합일'이든, 그 목표는 자기 신격화 내지 절대화임을 알 수 있다. 즉 인격적인 신과 동화되든 비인격적인 브라만과 합일되든 간에, 그 내용은 인간의 본질을 절대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신격화와 확대에 관하여 선다 싱(Sundar Singh)은 그 위험성을 적시하고, 창조에 속해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를 신화(vergottet)했다고 지적했다.

참 구원이란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고 자아를 멸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이기심(Selbstsucht)을 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기적 자아'가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고, 그 결과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선다 싱은 "자아에 대한 기독교적인 자기 긍정은, 힌두교의 신격화한 자아에 대한 부정"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불교의 요가는 열반에 도달하려는 테크닉이다. 열반이란 '바나'(불다)에 '니르'(부정사)가 붙어 있는 단어이며 '불어서 끈다'는 동사이다. 즉 번뇌의 불꽃을 불어 꺼 버린 것과 같이 탐·진·치(貪·瞋·癡)와 모든 번뇌의 불길기 꺼지고, 일체의 고통(苦)에서 벗어난 상태다. 이를 멸(滅)·적(寂)·적멸(寂滅)이라고 한다.

열반은 생존 시 열반과 죽음에 의한 열반이 있어, 전자를 불완전한 열반, 후자를 완전한 열반이라 칭하고, 석가모니의 죽음을 입멸(入滅)이라 한다. 입멸은 등잔불을 끄듯이 괴로움을 느끼는 감각기관과 의식을 완전히 멸한 상태이다. 독일의 M. Winternitz는 이 열반을 "강경중적 마비(Kataleptische Starre)"로, A. Forke는 "완



이 동 주 박사
선교신학연구소 소장

전 최(vollständige Hypnose)" 상태로, D. T. Suzuki는 "영적 자살(geistiger Selbstmord)"로 각각 해석하고 있다.

석가모니의 열반에 이르는 수행법 '8정도'의 마지막 단계인 '정정(正定)'과 같이, 수도자가 최후의 삼매(samaj)를 준비하는 단계로써 모든 감각과 의식을 끊어 분별심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때 마음은 무소유처(無所有處)에 머물러, 실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더 이상 생각과 상상이 없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적멸(寂滅)이다. 일체 의식과 자각이 멈춘 상태(滅盡定)이다.

그러나 요가 수련 중에 황홀경이나 최면에 빠지기 쉬우므로, 촛불을 이용해서 의식을 일깨우며 위치 바꿈을 하기도 한다. 숨(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대상물에 의탁하여 코끝→심장→배꼽으로 옮겨가며 몰입한다. 이때 세계를 실제로 보는 의식이 점점 약해진다. 이것이 열반에 도달하는 길이다.

원효(617-686)의 통불교적 중심 개념도 역시 "일심"이며, 그도 일심을 불성과 동일시하였다. 이 기영은 원효의 "일심"을 "포괄자" 또는 "무이"라 하며, 주체와 대상이 구별되지 않은 하나의 마음 또는 전체의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본래 다르지 않다(일심동체)는 말이다.

원효는 일심을 "무소유"라 하여 "머무는 곳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며, "일심"은 모든 지식과 개념과 의미를 멸함으로써 달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열반"이며, 이 상태를 "멸아"라고 한다.

D. T. Suzuki는 사람의 마음이 '공'한 상태가 불성의 상태이며, 주체와 대상이 통일된 상태가 열반이라고 한다. 중국의 고승 황벽이 "나는 절대자 안에 거하고 절대자는 내 안에 거한다", "나는 절대자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인간을 신격화한 상태가 바로 열

반이고 일심이다.

힌두교가 자아와 우주와의 합일을 추구한다면, 불교는 인생의 고(苦)에서 탈출하려는 무신론적 현실 해결주의에 기울었다. 또 힌두교가 3억 3천의 신을 숭배한다면, 불교는 처음부터 철저한 무신론이다. 그것은 속죄의 사실과 역사적 근거를 가진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와 업보에서 스스로 탈출해야 하는 자력 구원관이다.

불교는 원죄와 창조론을 거부하는 무신론 종교이기 때문에, 구원자도 구원도 없다. 불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아를 찾는 종교로서 철저한 무신론에 빠지게 되어, '참 자아'라는 '무아'를 실현하고 또 그것과 동일시하는 무신론 형태의 자기 절대화를 추구하는 종교다. 불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회개도 용서도 구원도 천국도 없는 무신론 종교다. 이들의 구원이라는 해탈 또는 열반의 상태란, 참다운 구원이 아니라 그들의 말 그대로 '멸아'이다.

결어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세마 잔들의 합일의 신비 체험에는 큰 위험이 동반한다. 첫째로 알라와의 합일신학이나 무아지경의 체험에는 인간 신격화의 신학이 전제되어 있어, 꾸란에 의하면 신성모독에 해당된다. 둘째로 세마 잔들이 알라라고 하는 그 대상은 참 알라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세마잔이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대상에 대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피가 어떤 대상을 접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메블라나 종단 수피들은 회전 무에 의해 도달하는 곳에서 만난 대상을 무조건 알라라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영 분별 문제에 관한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슬람교와 꾸란에 영 분별이나 거짓 영 내지 거짓 선지자 개념도, 영 분별 신학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종교의 창립자들과 이단 설립자들, 사면들도 마찬가지로 신비 체험을 바탕으로 했다. 이슬람의 수피들은 오직 신비 체험을 진리의 기준으로 여긴다. 그러나 인간의 체험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회전무를 통해 무아에 이르려는 수피즘이나, 요가를 수행하여 브라만과 융합하려는 힌두교나, 요가를 수행해서 열반에 들어가려는 불교가 모두 사탄의 권

세 아래 놓이게 되는 원인은, 그들이 창조주를 부인하고 자기를 신격화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항상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테크닉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다. 사실 인간의 죄성을 수피즘이나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죄악과 죄성 때문에 실행된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변화되지 않고는 천국을 기대할 수 없으며, 용서받지 못한 죄를 조금이라도 지니고 있는 사람 역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죄악도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죄 용서 없이 구원은 불가능하며, 구원을 이슬람교의 회전이나 힌두교나 불교의 요가행위 같은 테크닉에 의해 획득할 수 없다. 성경적으로는 오히려 위와 같은 수피즘의 신인융합 사상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타락한 아담의 욕구와 병행되는 가장 큰 죄악으로 판정된다(창 3:5).

참된 신앙적 신비는 오직 기독교 안에 있다. 오직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회개하는 이에게 체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하나님 자신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행 2:38), 그 때부터 성령은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요 14:16) 구원을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고후 13:5, 요 3:5).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도나 예배 중 자아를 소멸하는 법이 없다.

성령은 한 번 강림하면 그 영혼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요 14:16). 성경은 성령(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계시는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한다(고후 13:5).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요 3:5).

이 사실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체험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의 선물이다.

성령은 결코 인간의 선행과 업적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행 2:38). <끝>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크리스천, 책임을 생각한다

원용일 | 두란노 | 264쪽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신앙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 롤 모델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지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죽음이라는 죄의 무게를 대신 담당한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고, 사랑의 책임을 함께 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병이 낫는다

손기철 | 규장 | 296쪽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질병 이전에 온전한 강건함을 누려야 한다. 질병의 치유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미 주신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당신의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치유받으라. 치유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라.



십자가의 능력

찰스 스펠전 | 예수전도단 | 2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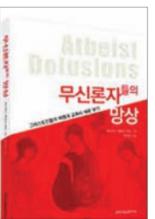
스펠전이 전하는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다. 그는 “값진 보혈의 교리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제거하고 진리의 보좌를 세운다”고 철저히 확신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스펠전의 메시지는 우리와 하나님의 화해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서 죄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를 놀라운 방법으로 제시한다.



무신론자들의 망상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 | 한국기독교연구원 | 400쪽

이 책은 리처드 도킨스를 비롯한 몇몇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종교에 대해, 특히 그리스도교에 대해 공격하는 주장들이 실제로는, 예를 들어 니체의 그리스도교 비판과 비교해보아도, 얼마나 유치한 망상들인가를 지적하면서, 그리스도교의 문명사적 의미를 밝힌 책이다. 저자는 인류의 참혹한 역사 속에서 진정한 혁명과 인도주의적 가치들의 역사적 뿌리는 그리스도교 안에 있다고 논증한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우리는 교회 담장 밖에서도 크리스천이어야 한다

“우리는 교회 담장 밖에서도 크리스천이어야 한다”

계속 우리끼리만 행복한 바벨탑을 쌓을 것인가? 이대로 교회 안에만 숨어 있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 성도 개개인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고 말하도록 훈련받고 교회 담장을 넘어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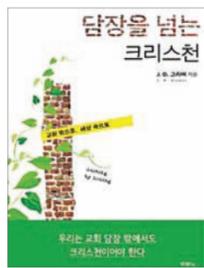
갈수록 심화되는 미국 내 탈기독교화 속에서 몇 년째 놀랄 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서밋교회(The Summit Church)의 담임목사 J. D. 그리어가 “이 시대,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회소식을 전한다.

나눔에 앞장서는 성도, 든든한 교회 일꾼, 뛰어난 리더들이 서밋

교회를 떠나고 있다. 교회나 사람에게 실망해서가 아니다. J. D. 그리어는 ‘복음 중심’ 목회, 성도들을 예수의 제자로 키워 교회 밖, 세상 속으로 보내는 ‘파송’ 목회로 주목받고 있는 목회자다.

그는 성도 개개인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고, 복음 전파를 위해 그들을 계속해서 교회 담장 밖으로 내보내는 데 힘써 왔으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 여정을 새 책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에서 솔직하게 풀어 놓았다.

이 책은 교회가 항공모함처럼 훌륭한 일꾼과 자원을 세상에 아낌없이 내어 줌으로써 이웃과 지역사회를 살리고, 나아가 전 세계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J. D. 그리어
두란노 | 335쪽

를 무대로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을 수행해야 한다고 도전한다. 예수님은 교회가 창고를 얼마나 크게 늘리느냐가 아니라 씨앗을 얼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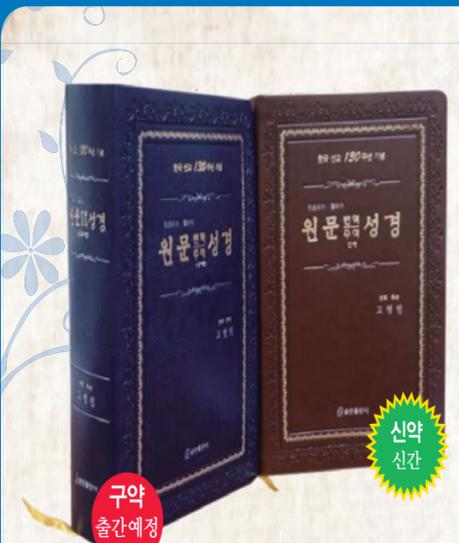
넓게 퍼뜨리느냐에 따라 목회의 성공을 평가하신다. 그분의 기준은 수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보내는 능력이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살고, 잃어야 얻는 나라다.

이 책은 원제(Gaining by Losing)의 표현대로 교회가 잃음으로써 얻는 것들을 보여 준다. 박제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 서밋교회 안팎의 역동적인 현장을 담았다.

대형교회를 세우겠다는 목표로 달리던 J. D. 그리어 목사에게 하나님은 제동을 거셨고, 이후 그의 사역의 목적과 방향, 그림은 완전히 달라졌다.

저자는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지혜, ‘보내는 교회’와 ‘보냄 받은 성도’를 위한 10가지 다짐줄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이 10가지 다짐줄은 오직 교회활동에만 몰입하는 평신도, 혹은 아무 수고와 희생 없이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만족하는 이들에게 교회 안에서 제자로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 교회 밖에서도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사명을 일깨울 것이다. 또 바쁜 현대 목회자들에게는 사역의 현주소를 점검하게 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방황하고 바깥에서도 방황하는 현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

이영인 기자



히브리어·헬라어

원문번역성경 (신약)

번역·주석 **고영민**
(前 백석문화대 총장)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히브리어·헬라어 성경 원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 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의해 성경적으로 주석한 하나님의 말씀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은 **聖經 翻譯의 決定版!**

새 시대, 현대 신앙인을 위해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체계적인 기획 하에 출간된 **劃期的 力作!**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나갈 **성경 주석의 源泉의 寶庫!**

•본서의 12가지 특징•

1. 전통적, 성경적 해석 원리에 의한 주석
2. 성경 해석의 기본 체계를 삼위일체식으로 강해
3. 원문을 축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 수용 언어로 알기 쉽게 전달
4. 신학의 학문성과 주석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높임
5.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성경적으로 평가, 결론 내림
6. 구약의 맥을 따라 원어와 문장 등을 명확하게 설명
7. 성경 시대의 배경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인용
8. 성경의 기본 자료인 고대 사본들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
9. 성경 지리와 고고학, 문화, 풍습 등을 현장 답사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
10. 원어와 동어, 반대어, 동음이의어를 상세히 기술
11. 성경 본문을 성경연구와 설교준비를 위해 내용별로 분해
12. 43개 번역본들을 통해 성경의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제시

목회자, 신학생, 성경연구자, 평신도 필독서!

“옳다고 믿어왔던 내 신앙...정말 바른 것인가?”

바른 신앙생활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영화 ‘일사각오’ 시사회”

주기철 목사 통해 나라와 민족 위한 신앙 깨달아야



지난해 책 출간을 기념해 방한한 김세운 교수(오른쪽)가 북 토크를 통해 여러 신앙적 질문에 답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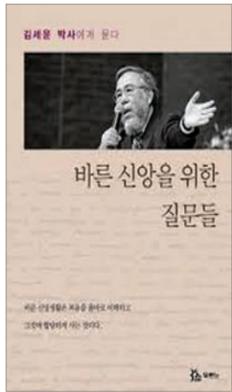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운 박사에게 신학이 있는 바른 신앙을 배우자”

크리스천의 삶은 무엇을 향한 것일까? 과연 '구원'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또 성경적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대한 질문에 김 박사는 “한국 교회 위기의 원인은 '신학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구원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가르쳐 왔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종말에 구원의 완성을 받는다고만 가르쳐 온 것이다. ... 구원을 죄 사함의 측면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측면으로도 이해해야 한다...”라고 설명한다. <본서 17쪽>

당신은 어떤 사람이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 하는가? 당신은 어느 정도면 스스로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주일성수하고, 헌금 잘 하고, 전도 잘 하며, 술/담배/제사만 안 하면 천국에 가셔도 일등석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 책은 한국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복음은 배우지 못하고, 거짓 복음으로 오도되어 온 결과, 앞서 말한 세 가지 '하기'와 세 가지 '안 하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바리새파적 경건주의를 경고한다.

또한 '예수 믿으면 건강과 부를 얻고 출세한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천 대가 복을 받는다', '건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 김세운 두란노 | 268쪽

김세운 박사 북 콘서트

일시 : 3월 3일(목) 오후 7시

장소 : 미주두란노서원 2층

초대인원 : 선착순 60명

신청기간 : 2월 26일까지

신청방법 : seminar@duranno.us

참가비 : 무료

문의 : 213-235-1068

강에 이상이 있고 집이 안 되는 것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라면서 한국 교회 강단과 성도들 사이에 복음의 미신화가 만연되어 있는 것을 개탄한다.

아울러 자살, 동성애, 십일조, 술 마시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랑의 이중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기준을 두고 해석해야 함을 강조한다.

기독교 신앙은 올바른 신학에 의해서 늘 새롭게 뒷받침되어야 그것이 바르게 서고 깊어질 수 있다.

신학적 사유와 분별력을 동반하지 않은 신앙은 맹신이 되어서 그릇된 신념과 스스로 불행하고 남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삶을 낳을 수 있다. 신학도 신앙과 분리되어 추구되면 옳은 신학이라 할 수 없다. 올바른 신학은 복음을 더 빠르고, 깊고, 넓게 이해하고 선포하게 하며, 복음에 합당한 사고와 삶을 양양하는 것, 즉 바르고 깊은 신앙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 책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운 박사가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 기독교 잡지와 신문들과 한 인터뷰, 그리고 그것들에 기고한 몇 개의 기사를 모아 구성한 것으로, 현실정에 맞게 첨삭을 가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사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미주두란노서원에서 저자 김세운 박사와 함께 하는 북 콘서트를 연다.

저자 김세운 박사는 서울대학교, 맨체스터대학교, 튀빙겐대학교 등에서 수학하고, 케임브리지의 틴데일 라이브러리에서 연구하였으며, 맨체스터대학교에서 Ph. D.를 받았다.

그 뒤 누차 튀빙겐대학교에서 Humboldt 연구원으로서 연구하였고, 싱가포르와 미국 칼빈신학교, 고든콘웰신학교, 풀러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였다.

국내에서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와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신약신학 교수 및 한인 목회학 박사 과정 담당 부학장직을 역임한 후, 지금은 신약신학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신앙으로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맞섰던 故 주기철 목사의 삶을 담은 영화 '일사각오'(제작: KBS, 배급: 파이오니아 21, 감독: 권혁만)가 오는 3월 17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영화 제작·배급사가 20일 오후 서울 KBS홀에서 VIP 초청 시사회를 개최했다.

이 시사회에는 교계 지도자, 순교자 유족, 제작·배급·협찬사 대표, 배우 등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최선규·김경란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1부 오프닝 행사에서 환영사를 전한 KBS한국방송 고대영 사장은 “주기철 목사님은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본받아야 할 분”이라며 “충고한 사랑을 담은 이 영화가 故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담은 '울지 마 톤즈'처럼 사회에 자극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길 바란다”고 했다.

축사를 전한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는 “교회는 거름이 있어야 성장하는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생명과 피와 고통이 바로 그 거름”이라며 “주기철 목사님은 어느 나라에 내놔도 최고의 성자요 믿음의 분이 되는 어른으로, 유럽에 계셨다면 2천 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빛나는 성자가 되셨을 것”이라고 했다.

조일래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는 격려사를 통해 “오늘날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모든 방송사들이 수익성에만 매달리니,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괴멸되고 있다”며 “그런 중에 공영방송 KBS가 일사각오를 제작해 방송의 위상과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협찬사 대표로 인사한 소강석 목사(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 새에덴교회 담임)는 “눈물과 애애음

으로 밤을 지새우며 이 영화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한국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주기철 목사의 친손자로, 유족을 대표해 인사한 주승중 목사(주기철 기념사업회 이사장, 주안장로교회 담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유족들도 귀한 신앙 유산을 잘 이어가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할 것”이라고 했다.

배우 이지형 씨(주기철 목사 역)는 “주 목사님의 믿음과 사랑이 흐르길 바란다”고, 설지윤 씨(주 목사 사모 오정모 여사 역)는 “일사각오의 신념으로 만든 이 영화에 참여하게 돼 감사하다”고 했다.

또한 최원 군(주 목사 아들 주광조 역)은 “영화를 촬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후 테너 박주옥 씨(백석예술대 겸임교수)와 크로스오버 소프라노 임지은 씨(명지대 외래교수)가 추모곡 '영문 밖의 길'을 불렀다.

2부에서는 영화 시사회 시간이 이어졌다.

주기철 목사의 이야기는 지난해 KBS에서 성탄절 특집 다큐멘터리로 방영돼 시청률 9.7%를 기록하며 호평을 받았다.

당시 다큐를 제작했던 권혁만 감독이 이번에는 영화로 주 목사의 이야기를 선보이는 것. 권 감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영화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과거 손양원 목사의 실화를 다룬 다큐 '죽음보다 강한 사랑 -손양원'과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도 제작했다.

류재광 기자



이영인 기자

영화 '일사각오'의 한 장면. ©파이오니아21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독교동족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링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대리점 모집

젊게 하는 세제 "에미나"

우리 가정에서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를 친환경, 무공해, 항산화 효소세제인 “에미나”가 이제 대신합니다.

일본에서 토양 속의 이로운 균을 이용하여 효소로 제조된 “에미나”는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생활 용품, 세차, 이항, 냄새제거,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 관리, 화초, 텃밭가꾸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무공해 친환경 세제입니다. “에미나”는 세제구입 비용과 물을 절약 할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세제입니다.

식당 화장실 냄새제거 특효
“에미나” 스프레이 하시면 어떤 냄새든지 쉽게 없어집니다.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지독한 식당의 화장실 냄새가 없어지지 않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가정 필수 제품: 밥줄】
밥 지을 때 밥줄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필수 제품: 생생 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사용 효과

- ▶ **세탁:** 적은 양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시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고 먼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굼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됩니다.
- ▶ **집안(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뿌리면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곰팡이, 화학물질, 갈마 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뿌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굼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쉽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기루를 땅에 뿌리거나, 작물에 스프레이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바꾸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잘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추 작물을 사람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뿌리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 **양치질 할 때 극소량을 치약에 발라 사용하면 혀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나 먹지는 마십시오.**
-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뿌리면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방청소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3~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가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 집안 청소 시(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뿌려 주시면 됩니다.
- ▶ 작물에 뿌릴(스프레이) 시 1/5,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음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달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슈팅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제책, 연속물인쇄 전문
junimedia.com

전도후계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영범음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일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터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서디영범음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형 실교서터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용서
각종 행사용, 전도용, 선물용에 구비되어 있으나, 불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영범음과 배너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تون업정비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회비: 월 \$10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항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Special Price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현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I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골든씰 천연항산화제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 폐렴, 신종플루, 독감,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지독한 비름, 두피염증, 가려움증, 탈모
•치질(항문하혈, 통증) •우울증
•독소제거, 혈관 청소 •관절염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원형탈모
•불임증 (자궁축, 하혈) •만성두통, 요통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 Growing Love for the Immigrant Church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Pastors, XXIX: Dr. Benjamin Shin

BY RACHAEL LEE

Dr. Benjamin Shin is one who is commits himself for the long haul. Shin, who is 52, has pastored at LA Hanmi Church for 15 years and at LA Open Doors church for 7; co-founded and has led a para-church ministry called Crossroads Campus Ministry (CCM) for 30 years; and has taught at Biola University's Talbot School of Theology for 14 years as an adjunct faculty and almost 10 years as a full-time professor.

Today, Shin's primary commitment involves building up pastors in the immigrant church and Asian American ministry. Though Shin no longer serves as a pastor, he mentors several pastors each week, has been the head of the Asian American Ministry Conference which has been taking place at Biola University for the past two years, and is currently co-authoring a book about Asian American ministry.

Indeed, it's well-known amo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at many English ministry pastors or youth pastors leave the immigrant church after two to three years due to the difficulties that arise from cultural and language differences.

Shin is no stranger to those difficulties. Shin grew up with parents who, as he described it, acculturated quickly into American culture and spoke only in English to him. As a family, they attended churches such as Grace Community Church or Lake Avenue Church, where most of the congregants were Caucasian, for the first 25 years of his life. As a result, Shin was faced with numerous obstacles when he was first hired into a Korean immigrant church.

"I pretty much broke every cultural rule there is at some point," Shin said.

He didn't *insa* to his elders – a formal way of greeting people with a bow and formal language – nor did he visit his congregants during major events like newborn births because he believed, as he saw in Caucasian churches, that the family needs personal space for about two to three weeks afterwards. It was quite confusing for his Korean congregants who wanted to have their pastor visit them almost immediately after news of the baby's birth, Shin explained.

"It was purely out of ignorance," he said, "I just didn't know."

Yet Shin didn't consider those difficulties as reasons to leave, but lessons to learn from.

"[The cultural dynamic] was hard because I didn't understand it," Shin explained, "but when I did understand it, it made a huge difference."

This is what he hopes to share with younger pastors who may be struggling in the immigrant church, Shin said.

"Younger pastors say they want to be multi-cultural, but how can they if they don't want to work with the first generation [Koreans]?" he explained.

When looking past the difficulties that come with cultural, generational, and language differences, Shin said that there is a wealth of benefits that a pastor can obtain by serving in the immigrant church.

"You learn how to be cross-cultural... You learn the spirituality of the culture ... You learn how to be humble ..."

- regarding the benefits of the immigrant church

"You learn how to be cross-cultural," Shin started, as he began gushing about the benefits of serving in the immigrant church. "You learn the spirituality of the culture, such as learning to pray. You learn how to be humble by learning how to submit, which is a godly virtue. You learn generational ministry, as most immigrant churches have children to grandparents. You learn how to be honorable and respectful, which is a culture embedded in the immigrant church and is hard to find in the Caucasian church."

"The immigrant church stretch-



Dr. Benjamin Shin is a professor at Biola University's Talbot School of Theology, where he heads the Asian American Doctor of Ministry cohort.

es a pastor in all aspects," he said.

Shin also believes that there may be a subconscious familiarity that Korean Americans feel about their culture, even without knowing. For example, he said he believes most Korean American pastors who have gone to serve in pastoral roles in multi-ethnic or other ethnic congregations will return to the Korean immigrant church.

"They're going to miss the relationships," Shin said. "The way we relate to one another is different."

Shin hopes that through the various ministries he is engaged in today, that pastors would be able to come to realizations and find comfort as they understand those cultural elements more deeply. This is a particular hope that he has for the book that he is co-authoring, called "Tapestry of Grace: Unraveling the Cultural Complexities of Asian American Christianity."

"The hope of the book is that younger pastors would be able to get a deeper understanding of 'why,'" Shin said.

Shin and Dr. Cheryl Silzer, who is co-authoring the book with him, had been teaching a class together called, 'The Asian Church and American Society,' in which Silzer touched upon cultural aspects

and Shin touched upon theological aspects. Once people com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and what the root of certain behaviors may be, people find comfort and healing, Shin found.

"Every time we explained what might be going on, I would see people lighting up and realizing things," he said. "People even called our class 'Therapy 101.'"

Some of the topics they delve into in the book, which is largely based on what they taught in their class, include how the honor and shame culture affects relationships; the Korean concept of *han*, or a deep grieving or longing; leadership and theology differences; and different church models that Asian American churches have had.

As Shin himself continues to learn more about those elements, he said, "I am still loving the culture, the people, the food, the humor, the spirituality," Shin said. "My love has been growing."

"I'm very hopeful for what's happening, in the large scope of things ... We just need to stay the course, stay faithful, and glean what our previous generation did, so that we're not self-reliant and arrogant. And God will show us favor."

Christians Intercede for Rev. Lim at Canada's Parliament

300 gather in the aftermath of fierce recent snowstorm

BY JINYOUNG KIM

Some 300 individuals gathered in front of the Canadian Parliament Hill on February 17 for a prayer meeting on behalf of Reverend Hyeon Soo Lim, who was sentenced to life in prison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last December after being detained during his last visit to the country. Many of those who gathered included members of Light Presbyterian Church, where Lim had been serving as the lead pastor until his detainment.

The intercessors gathered despite the worst snow storm in Ottawa's recent history and prayed fervently for Lim's return.

"All of these people from Light Presbyterian Church and other leaders of the church community came despite the bad circumstances and the long distance. It was a time that we were able to once again realize how strong the church community could be and how great their love is," said one of the attendees. "Compared to the amount of time it took for many of them to travel here, it might have seemed like the time of prayer was short. But I know that we prayed with the heart like that of the woman who broke her expensive alabaster jar of perfume, and that our prayers will bear fruit."

A petition to secure Lim's release with some 165,000 signatures was also presented at the prayer meeting.

Tony Clement, a conservative member of the Canadian Parliament and a foreign affairs official, was also present at this prayer meeting along with Yonah Martin, a conservative Korean Canadian Senator, who both expressed hopes for Lim's release.

Children Bring Worship and Cheer to the Home of the Elderly

BY JUNHYEONG KIM

About 40 children from Sa-Rang Community Church visited a nursing home where some 60 elderly men and women live to share their warmth and love.

In particular, the church's children's choir, called 'Sharon Choir,' has been practicing worship songs and body worship for the past three months to perform for their audience at the nursing home, where their performance was met with the warmest applause.

On February 20, these children visited Welcome Christian Home, a nursing home located near Westminster. A dreary quiet is the usual at this place where most of the residents are single elderly men and women, but the place was filled with noise with the children's visit on Saturday.

After the performance, the children, who were dressed in Korean traditional clothing called *hanbok*, bowed to the elders as a part of Korea's New Year's traditions, and delivered hand-written cards to them.

"Now that I'm older, these children are so precious," shared Kyung-Ja Lee, one of the elderly women who live at the nursing

home. "These children are like grandchildren. I was just so happy just to see them."

"This would be the sixth year that Sharon Choir is participating in this ministry at the nursing home," shared Seong Wook Lee, a children's ministry pastor at Sa-Rang Community Church. "The elderly at the nursing home love having them visit, so we've been visiting them each year."

"We're almost like a celebrity group status to them," Lee added. "We'll continue to practice and perform the Korean children's songs that these elderly men and women love."

"I practiced with my mom at home, and I was so happy that the grandmas and grandpas liked it and sang along," shared Ki-Moon Lee, a six-year-old who performed on Saturday.

Lee's mother, Jin-Kyung Hwang, said, "It was meaningful to be able to share just a little bit of joy with these lonely grandmothers and grandfathers."

Meanwhile, the young adults' ministry at Sa-Rang Community Church has been visiting this particular nursing home each month for the 16th year to worship together and serve the elderly.



Children from Sa-Rang Community Church dressed in Korean traditional clothing and bowed to the elders at the nursing home.



'Sharon Choir' from Sa-Rang Community Church performed for the elderly. (Photos courtesy of Sa-Rang Community Church)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noclchurch.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lca.org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72개월까지
0%이자가능

소비자 만족도 서부지역 1위 •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 미국에서 에쿠스를 가장 많이 파는 딜러!

PRESIDENTS DAY SALE

NEW
2016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3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3,000 Lease Cash,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JUST ARRIVED

Get Better Deal On
2016 Hyundai
 Find Out Why!!

NEW
2015 HYUNDAI
SONATA LIMITED
 With Ultimate
 Technology Pkg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32,730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Panoramic Sunroof, Navigation System W. 8" Touch Screen
 Integrated Memory System For Driver Seat & Side Mirror & More!!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500 Lease Loyalty Cash,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EQUUS SIGNATURE

Lease It For **\$399** +Tax

All In Stock With
MSRP \$62,45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8,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A PERFORMANCE VEHICLE WRAPPED IN LUXURY"

NEW
2015 HYUNDAI
GENESIS SEDAN 5.0L V8 Engine

Lease It For **\$299** +Tax

All In Stock With
MSRP \$52,7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4,25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It's an honor to be nominated 2015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Finalist"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